

극우 '일베'와 너무나 닮은 일본 '재특회'

'거리로 나온 넷우익'

야스다 고이치 지음

"조선인을 죽여라"
한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죽여라!"
그 뒤를 따르는 제창이다. 시위대는 1백 명이 넘는다. ('거리로 나온 넷우익' 중에서)



일본의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 '재특회'는 2013년 현재 일본에서 1만 3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반한 넷우익 단체다.

한국에 '일베'(일간베스트)가 있다면 일본에는 '재특회'(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가 있다. 재특회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반한 단체다. 일베와 재특회의 공통점은 극우 성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고 모욕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2013년 현재 한국사회는 일베라는 커뮤니티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류 언론에서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들의 선전적인 극우 발언은 점차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제로 일베에서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 '환타'를 '환어', '좌파'를 '좌파'라고 비하해 파장을 낳았다.

우리의 일베 논란과 흡사한 논란은 일본은 앞서 겪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재특회는 밖으로 나와 점차 조직적인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 사회에 불고 있는 불온한 '일베'현상을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적절한 방향타가 될 수 있다.

일본 저널리스트의상을 수상한 야스다 고이치의 저서 '거리로 나온 넷우익'은 일본에서 1만 3000여 명이 활동 중인 반한 단체 '재특회'를

분석한다. 재특회가 지니는 일방적인 속성은 한국에 대한 혐오감, 평화헌법9조개정(야스쿠니신사 참배) 동조, 정치·사회 문제에 자기 목소리 내기로 집약된다. 재특회 회원들은 집회에 참여하거나, 주장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생의 희열을 느낀다.

이들은 "재일특권이야말로 세상의 부조리를 풀 열쇠"라고 믿으며 이를 박탈시키는 것을 "애국적 행위"라고 믿는다. 나아가 스스로를 기존의 우익과 구분하며 '행동하는 보수'라고 칭하기까지 한다.

저자의 관점에서 이들의 행태는 '허상에 가까운 애국심'일 뿐이다. 이 같은 행위의 이면엔 의로움과 무력감 그리고 피해의식이 자리한다. 사회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거나 이해와 공감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이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해법이라고 여긴다. 저자의 표현대로라면 재특회는

"외로운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인 셈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릴 만큼 비불 경제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 종신고용은 사라지고 비정규직은 대폭 늘었다. 불안정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탈출구가 그와 같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저자는 그렇다고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침묵하지도, 과장하지도, 더더욱 왜곡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베현상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본의 재특회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하게 분석,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가 동반자 이주노동자나 중국 조선족에 대해 갖는 이중적 시각을 먼저 재고하는 게 우선 순위가 아닐까.

〈후미니티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하와이 이주 한인 1세대의 꿈과 고뇌, 아픔...

'당신의 파라다이스'

임재혁 지음

제9회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당신의 파라다이스'가 책으로 나왔다. 저자인 임재혁씨는 지난 1964년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 1985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난 미국 시민권자다.

'당신의 파라다이스'는 구한말 조선인들의 하와이 이주를 토대로 한 장편소설로 이민선에 몸을 실은 네 명의 남자가 하와이 집단농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어렵게 삶의 터전을 일군 하와이 이주 한인 1세대의 고뇌와 아픔이 묻어난다.

이야기는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에서 만나 의형



제를 맺은 오창석과 최상학, 친자매처럼 자란 강희와 나영, 이들 네 명의 인물이 펼치는 사랑과 우정을 기본 토대로 전개된다. 낙원을 꿈꾸며 고향을 떠난 이들은 과연 그 꿈을 이루었을까?

저자는 "나는 낙원을 향해 가는 긴 여정이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한다. 파라다이스가 생선의 장소가 되었을 때, 그곳은 일상에 파묻혀 빛을 잃고 삶은 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파라다이스를 꿈꾸게 한다"며 어딘가에 존재할 파라다이스에 대한 꿈이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다.

〈나무열의자·1만3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불공정한 시스템이 빈익빈부익부 악화시킨다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세계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자는 갈수록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있다. 중산층과 부유층 사이의 간극도 날로 벌어지고 이에 따른 불평등도 증대되는 추세다.

'정보 비대칭성'의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불평등의 대가'를 펴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그는 "미국은 1%, 1%를 위한, 1%에 의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 불평등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가 파악한 바로는 이 같은 현상은 시장의 힘과 정치적



권모술수가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생겨난다. 특히 정치 시스템의 실패는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이 빈익빈부익부를 악화시킨다는 의미다.

그 결과 지난 삼십 년간 하위 90%의 임금은 15%가 증가한 반면 상위 1%의 임금은 150% 증가했다. 또한 30년 전 상위 1%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에 불과했지만, 현재 비율은 25%로 증가해 있다.

"대안적 틀 안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역할 중 하나는 소득의 재분배다. 시장경제가 지나치게 편중된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바로 분배자로서 정부가 맡고 있는 역할이다."

〈열린책들·2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멋진 인생 살려면 강자엔 당당 약자엔 겸손

'여덟 단어-인생'

박용현 지음

'그녀의 자전기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등의 카피로 유명한 광고쟁이 박용현. 그는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책은 도끼다' 등을 통해 인문학의 저변을 넓힌 사람 중의 한 명이기도 하다.

그의 새 책 '여덟 단어-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인문학적인 삶의 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책이다. 그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여덟개의 키워드는 '자존', '본질', '고전', '견(見)', '현재', '권위', '소통', '인생'이다.

시간을 이겨낸 '고전'을 다룬 대목에서는 김홍도의 '소림명월도', 베토벤의 '월광'과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 뭉크의 그림들에 대



한 생각들을 만날 수 있다.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면, 강자에게 당당하게 고개 들고 약자한테 폭 속여라', '개같이 살자'는 각각 '권위'와 '현재'를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강조한 것들이다.

이 책은 2010년 20대, 30대 젊은이들과 함께 한 강연 기록이다. '책은 도끼다' 출간 후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책 이야기와 더불어 삶에 대한 태도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게 계기다. 저자가 '딸 아이에게 해 주었던, 혹은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로, 강연을 그대로 옮겨 현장감 있게,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북하우스·1만5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엘러리 퀸' 비극 시리즈 나왔다



추리소설을 쓰는 사촌 형제의 필명이자, 작품 속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명탐정의 이름이기도 한 '엘러리 퀸'의 활약상은 추리 소설 팬들에게는 큰 즐거움이다.

'이집트 십자가 미스터리', '네덜란드 구두 미스터리' 등 엘러리 퀸의 '국가 시리즈' 9권이 출간된 데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시리즈는 '비극 시리즈'가 선을 보였다.

1차분으로 먼저 나온 'X의 비극'과 'Y의 비극'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이는 은퇴한 셰익스피어 극의 명배우 드루리 레인이다.

특히 미치광이 집안의 주인과 가족들이 연이어 시체로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Y의 비극'은 '세계 3대 추리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수작이다. 조만간 'Z의 비극'과 '드루리 레인 최후의 사건'도 출간될 예정이다.

〈검은숲·각권·1만3000원〉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학교폭력은 청소년 문제 중 가장 본질적 문제

'학교의 눈물'

SBS 스페셜 제작팀 지음

지난 1월 학교폭력의 실상을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던 SBS 스페셜 '학교의 눈물'이 책으로 나왔다. 방송은 2012년 12월 학교 폭력으로 자살을 선택한 대구의 중학생 사례를 계기로 어떻게 하면 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대부분 부모들은 내 아이는 자신이 잘 한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가해자인 일진이나 짝이 되고, 어떤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폭력에 시달린다. 사실 학교 폭력은 사회의 축소판처럼 세상의 일면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부모와 학교, 사회가 다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책은 방송에서 들려주지 못했던 아이들 세계의 구성구석을 소개,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가해자도 또 다른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대부분 가해자는 실제 피해 경험

이 있는 학생들이고, 이 학생들이 누군가를 괴롭히는 연쇄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수많은 청소년 문제 중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저자는 '학교폭력=내 아이의 문제'라는 시각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진짜 주인공은 아이들에게 앞서, 어른들의 관심이라는 것이다.

〈프롬북스·1만4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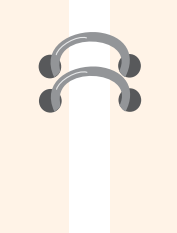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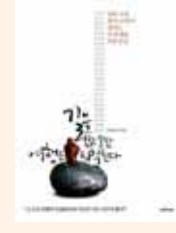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 철학하는 아이=집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을 통해 삶과 우주에 대한 아이의 다양한 호기심을 함께 탐구하고 자연스럽게 철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자녀 교육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갖가지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암시해주고, 상상력과 감수성을 자극하며 엄마와 아이가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게 해준다. 〈한권책·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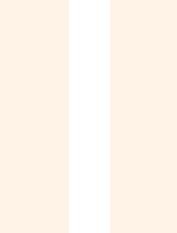
▲치와 차살림=한국의 차문화와 함께 전통과 다도의 개념을 되짚어보는 책. 47년째 차와 더불어 살고 있는 저자 정동주는 도예가들과 긴 세월 토론을 거쳐 동다완(東茶碗)이라 불리는 우리만의 찻그릇 형태를 연구하고 만들어냈다. 동다완은 안정된 형태와 빛깔로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 차문화가 버려야 할 것과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했다. 〈한길사·2만2000원〉



▲길을 잃은 순간 여행은 시작된다=우리 시대 명사 40인이 말하는 내 인생을 바꾼 순간 '길을 잃은 순간 여행은 시작된다'.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40인의 명사가 들려주는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한순간의 울림을 담았다. 발레무용가 강수진, 영화감독 강제규, 시인 김용택, 피아니스트 서해경, 소설가 신경숙, 국악인 안숙선, 관화가 이철수, 차종업 신부, 뮤지컬배우 최정원 등 명사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블루앨리펀트·1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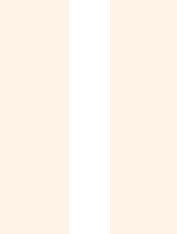
▲10년후 일의 미래=전 세계 2만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미래학 연구지인 '트렌즈'지에 실린 기사 중 국내 독자에게 유용한 것들을 모아 엮었다. 그래픽과 몰리브데나이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무인자동차, 바이오-나노프린팅, 생분해성 플라스틱, 녹조류 농장 등 전세계 업계지도를 뒤바꿀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신기술들이 지금부터 10년 후까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에 따른 기회와 위기는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일상이상·1만5000원〉



▲삼국유사, 바다를 만나다=삼국유사에 도 바다와 연관된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는 발상에서 착안해 '삼국유사' 중 바다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추려낸 책이다. 비슷한 키워드를 가진 이야기를 모아만 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체계적인 시선을 더했다. 바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의미를 풀어내고 있지만, '역사'와 '불교'라는 주제를 살려 1부 역사와 바다, 2부 불교와 바다로 구분했다. 〈산지니·1만5000원〉



▲아인슈타인의 생각=아인슈타인의 세계관을 읽을 수 있는 책. 책에 실린 글들은 주로 신문과 잡지, 학회보 등에 발표된 것들로, 탁월한 과학자가 세상을 보는 눈은 어땠는지 짐작하게 한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 존재의 나약함을 깨닫고 일찍이 겸손을 실천했던 한 물리학자의 내면세계는 많은 이들에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한글북스·1만4000원〉



▲글 쓰는 강아지 몽치=글쓰기에 자신없어 하는 몽치가 친구들의 도움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 이제 막 글 배우고 조금씩 읽기나 짧은 글을 쓰기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몽치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주는 그림책이다. 저자 테드 힐스는 글쓰기 고민에 빠진 아이들을 응원하며 내 주위의 작지만 소중한 것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준다. 〈상상박스·1만5000원〉



▲나니아, 꼬마 디자이너=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책. 감성부터 발상까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사물을 접할 수 있는 명화를 먼저 감상하고 그 사물에 대해 두 캐릭터가 나누는 이야기를 읽은 다음, 자기 나이 또래의 디자인 작품까지 살펴본 뒤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게 한다. 〈토토북·1만5000원〉



▲대대대 뭐라고 말하지? 우리말의 숫자와 시간=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의미가 낯선 우리말 표현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그림동화책. '첫돌, 환갑, 칠순'처럼 특별하게 부르는 나이부터 '정월, 동짓달'처럼 특별하게 부르는 달의 이름까지 우리말에 있는 나이와 숫자,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어휘표현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글북스·1만1000원〉

▲나니아, 꼬마 디자이너=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책. 감성부터 발상까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사물을 접할 수 있는 명화를 먼저 감상하고 그 사물에 대해 두 캐릭터가 나누는 이야기를 읽은 다음, 자기 나이 또래의 디자인 작품까지 살펴본 뒤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게 한다. 〈토토북·1만5000원〉

▲나니아, 꼬마 디자이너=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책. 감성부터 발상까지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사물을 접할 수 있는 명화를 먼저 감상하고 그 사물에 대해 두 캐릭터가 나누는 이야기를 읽은 다음, 자기 나이 또래의 디자인 작품까지 살펴본 뒤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게 한다. 〈토토북·1만5000원〉